

의대 여학생 40% “성희롱 당한 적 있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10명 중 7명이 교수 등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인권외국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중 72.8%가 학교나 실습을 나간 병원 등에서 교수·레지던트·인턴 등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성별로 인해 전공과 업무 선택에 제한과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학생도 80%에 육박했다(58.7%). 반면 같은 답변을 한 남학생은 17.7%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 2017년 부산대학교병원 진공의 폭행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것을 계기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763명이 참여했으며 남학생이 1017명, 여학생이 743명이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성폭력 관련 문항도 포함됐다. 여학생 중 37.4%가 언어적 성희롱을, 18.3%는 신체적 성희롱을, 17.1%는 시각적 성희롱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의과대학 등에는 성차별·성폭력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9.5%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60%가 희석 참석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47%가 음주 강요를, 16%가 단체 기합을, 6.8%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진 해원이 성폭력·폭력·부당대우의 주요 가해자로 교수를 지목했다. 병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교수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와 인턴에게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수·레지던트·인턴과 함께 동료 학생들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대학이나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대부분 신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거나 ▲학교 당국과 다른 학생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와 보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42.0%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의대 40개 재학생 176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37.4% 언어 성희롱·18.3% 신체 성희롱 당해 “주요 가해자는 교수…신고해도 은혜 급급”

31.9% '그 문제가 공정하게 다루지지 않을 것', 약 25%는 '신고하면 자신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뉴스스



봄꽃에 분주해진 꿀벌 맑은 날씨를 보인 23일 제주시 오라2동 월경사 앞 들에 핀 매화에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부지런히 꿀을 따고 있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낮 최고기온이 14.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공공용 봉투 빼돌려 해고된 광산구 환경미화원 복직판정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빼돌려 쓰다 해고당한 광주 광산구청 환경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받았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광산구 공무원직가로환경관리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린 1심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관리·감독 책임이 구청에 있는 점, A씨의 횡령 규모가 봉투 7장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산구 공공용 봉투 440여 장(112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구청에 제기된 민원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던 광산구는 A씨가 7장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 나머지 봉투를 회수했다. 광산구는 과거 무단결근 등으로

경징계를 받았던 A씨가 고의로 봉투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한 해고를 구제하라’고 구제를 요청했다.

지노위는 ‘300만 원 이상 횡령할 경우 중징계한다’는 단체협약 조항 등을 이유로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다.

임형택 기자

설 맞아 전통시장 544곳 주변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544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통시장 544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 허용된 시장 168곳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들의 의견 수렴해 선정했다.

뉴스스

러시아 초음속 폭격기 훈련 중 추락 3명 사망

러시아 폭격기 1대가 22일(현지시간)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등 3명이 사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초음속 폭격기 투폴레프(Tu-22M 3) 1대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북서부 무르만스크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귀한 착륙하던 중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심한 눈보라로 인해 착륙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1명이 사망했다. 현지에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목격자들은 폭격기가 착륙하기 전 공중에서 이미 폭발해 두 동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2일부터 폭우가 계속됐다. 최대 시속 2400km로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7000km에 달한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재래식 공격은 물론 합성 공격도 운용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댐 수문 개방으로 홍수·산사태 6명 사망

인도네시아 중부 고원에서 폭우로 댐이 수문을 개방해 너무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집을 잃었다고 한 관리가 23일 밝혔다.

남술라웨시섬에 있는 고의의 책임자 아드난 푸리하타 의원은 숲진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유아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으며 한 명은 성인 남성으로 감전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2일부터 폭우가 계속됐다. 이번은 정부청사 한 곳과 이슬람 사원 한 곳 등 2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했지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들 두 곳으로 피난했던 주민들을 추가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빌리빌리 제방 직원들은 수위가 너무 갑자기 불어나 미리 대피 경고를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댐이 무너지는 등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수문 개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기 때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美 고교생 아메리카 원주민 모욕 논란 확산

미국 캔터키주의 고등학생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참전용사를 모욕한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연속으로 학생들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고, 학교 측은 상황이 격화되자 휴교령까지 내렸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코빙턴 학생들이 가져온 뉴스의 내용이 옳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학생들을 두둔했다. 그는 전날인 21일에도 트윗을 통해 “닉 샌드번과 코빙턴 가톨릭(고등학교) 학생들이 초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 당한 것 같다. 언론에 의해(명예) 훼손된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새 영상은 십대(소년)와 원주민 간의 만남에 대해 언론이 잘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 미국 수도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캔터키주 북부 코빙턴 가톨릭 고등학생들과 아메리카 원주민 시위대가 서로 마주친 것이 발단이 됐다.

네티 반대를 주장하는 고교생들과 아메리칸 원주민 인권운동가들이 마주치면서 언쟁이 시작됐고, 일부 학생들이 인디언계 참전용사이자 원주민 인권운동가인 네이션 필립스(64)를 비웃으며 북을 치며 모욕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장벽을 만들려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고, 필립스는 “여기는 인디언들의 땅이므로 장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에는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캔터키주 코빙턴 가톨릭 교구에 모여 학생들의 사과와 양측간의 화해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현지 경찰은 학교주변을 에워싸며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했고, 수많은 취재진 차량이 몰려들어 이를 취재하는 등 인구 4천명의 조용한 도시가 하루 종일 여수선했다.

학교측은 이날 휴교를 결정했고, 다음날에도 휴교령을 풀 것인지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과 실제 위협을 가하는 메시지까지 무차별적으로 올라왔고, 학교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코빙턴 가톨릭 교구의 홈페이지도 다음날 마비됐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